

제2장 죽음에 대한 이해

1. 죽음의 정의

2. 기독교 사상과 죽음

3. 타 종교에서의 죽음의 의미

예로부터 죽음은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종교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임종자와 이를 돌보는 이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1) 한국의 무속 신앙과 죽음

죽음이란 현상은 살아 있는 자들에게는 체험을 통한 인지가 불가한 영역으로, 그것을 체험하였을 때는 이미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다. 이런 이유로도 인간은 항상 죽음이라는 현상을 두려워하며 죽음과 그렇지 않은 현상(삶) 간의 경계를 나름대로 설정하여 왔다. 무교(巫敎)에서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삶에 대비되는 죽은 후의 삶을 인정하고, 그러한 죽음의 삶 속에서도 살았을 때의 행적과 죽은 후에 살아남은 자손들의 발원에 의하여 달라지는 사후세계에서의 삶의 질을 설정하였다. 이는 망자를 떠나 보낸 살아남은 자들의 삶의 안위를 이루어주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될 만 하다.

우리의 옛 풍습에서는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 버리면 정말 죽은 것이고, 그 영혼이 다시 그 육체 속으로 돌아오면 살아난다고 생각한다. 한 인간이 호흡을 멈추면 그 사람이 입던 옷을 가지고 지붕 한가운데로 가서 북쪽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이름을 세 번 길게 부른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 혼이 다시 몸에 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고복(梟復) 혹은 초혼(招魂)이라고 하며 이렇게 해도 살아나지 않으면 그때에야 비로소 '죽음'으로 규정한다.

한국인 의식의 저변을 흐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무속에서의 죽음관은 언제나 원한 관계로 파악하였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죽은 자에 대하여는 살풀이를 해서 망령(亡靈)을 저승으로 보냄으로써 후환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무교에서 행하는 사령제(死靈祭)의 주된 목적이다.

씻김굿에서 망자를 씻기는 일에 주력하는 이유는 살아생전 못 먹고, 못 입고, 혼인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 편안한 삶을 누리지 못한 영혼은 그 한으로 죽어서도 저승에 들지 못하고 이승과 저승 사이를 헤매고 다닌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객귀는 산 사람에게 해를 미칠 수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살았을 때 아무리 죄가 많고 한이 많은 영혼이라도 가족이나 자손이 돈과 정성을 쏟아 굿을 하여 깨끗이 씻겨주면 그 덕으로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씻김굿은 삶과 죽음의 명확한 분리를 도모하여 망자는 죽음의 세계로 보내고 산 사람은 더욱 충실한 삶을 구가할 수 있도록 발복을 기원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의 영혼관은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사람이 죽은 후 저승으로 가는 사령(死靈)이고,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깃들여 있는 생명(生靈)이다. 이와 같이 무교에서는 영혼을 평안히 모셔서 저승으로 잘 가게 하는데 특색이 있다. 한국인은 영혼에 대한 모습과 성격 규정을 살아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죽음을 '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 살다가 늙어 수명이 다하면 저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게 된다'는 한국인의 생사관의 반영이다.

2) 유교 사상과 죽음

유교는 인본주의적 사상이다. 공자의 제자인 계로가 공자에게 "죽음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태어나는 것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리오"라고 하였다.

공자도 역시 죽음에 대하여 완전히 불가지론을 표명한 것은 아니었으나 죽음에 되도록 적은 관심을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종교적 관심은 '天(하늘)'에 있었는데, 그 하늘의 이론은 현실적으로는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을 통하여 실현 되는 것이라는 주대(周代) 이래의 사상을 재 강조하였다.

그러나 유교는 조상숭배를 의식으로 표현하는 제사를 매우 엄격한 제도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제례의식을 통하여 우리는 유교에서 죽음을 하나의 필연적인 사실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필연적인 사실은 현세의 삶을 도덕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하려는 하나의 계기로 삼는 데 의의가 있었다. 즉 생명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고, 시초가 있으면 종말이 있는 것,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므로 죽음은 이 자연현상의 일부일 뿐이고, 인간은 우주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는 것만이 올바른 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인간의 죽음은 마치 불이 꺼지듯, 죽음이 오면 인간의 지성이 끝나는 것이라고 인식 하였다. 사람은 죽은 뒤에 하늘로 올라가는 혼(魂)과 땅 속에 묻히는 시신(屍身)으로 양분된다. 이것들은 생명을 구성하였던 원형으로서 원래의 모습으로 복귀한 것뿐이다. 그 혼은

주희(朱熹)의 주장에 따르면 '氣(기)'에 불과한 것이다. 주희는 기가 물질로 결합하고 그것이 해체될 때 혼에도 변화가 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유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기(氣)로써 설명한다. 즉 사람은 기의 응취과정에서 생기는 정(精), 기(氣), 신(神)이나 그 결합체인 혼백(魂魄)으로 설명되는데, 이것들은 일정기간 존속하다가 그 기운이 다 하게 되면 혼(魂)은 양(陽)으로서 하늘로 돌아가고 백(魄)은 음(陰)으로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天)은 생사와 인간의 모든 것의 주체이며, 존재와 생명의 근원인 천에 의해서 생사가 이루어지고 지배되므로 순천명(順天命)하는 태도이다. 그러므로 죽음을 하나의 필연적인 사실로 인정하여 인간은 우주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는 것만이 올바른 도리라고 주장한다.

유교는 죽음 자체의 의미나 죽어서 시작하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삶과 죽음을 대자연의 법칙에 의한 신귀과정으로 봄으로써 형이상학적 문제로 돌렸다. 그러므로 그들은 삶과 죽음 때문에 앞뒤로 연장될 수 있는 상념을 처음부터 단념하고 거의 일회적인 인생 자체에 몰두하게 되었다. 공자가 한 것처럼 귀신과 죽음의 질문을 뿌리치면서 사람과 삶에의 정열적 관심과 사랑을 나타낸 것이 유교였다. 죽음은 인생을 시작해서 엮어가다가 마치는 엄숙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생사에 대한 생물학적 또는 종교적 관심에서 벗어나서 자기 책임 아래 인생을 엮어간다는 자율의 도덕론적 관심으로 정착된 것이다.

제2장 죽음에 대한 이해

3) 도교 사상과 죽음

도교는 중국 고대의 민간 신앙을 바탕으로 삼는 신선설(神仙說)을 중심으로 불로장생을 주목적으로 하는 현세 이익적인 자연종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교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선(仙)이 되어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도교는 죽음을 문제시하지 않고 죽음을 단지 자연 변화의 일부로서 도(道)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장자(莊子)의 도교적 입장의 죽음관은 특이하다. 그에 의하면 삶과 죽음은 도(道) 안에서 모든 사물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구별되는 것이다. 그는 무수한 사물이 '나'와 함께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는 죽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한다. "삶은 죽음의 동반자요, 죽음은 삶의 시작이니, 어느 것이 근본임을 누가 알랴? 삶이란 기운(氣運)의 모임이고 기운이 모이면 태어나고 기운이 흩어지면 죽는 것인데 이같이 사(死)와 생(生)이 같은 짝을 만나면 무엇을 조심하랴. 대지가 나에게 형체를 주고 생명을 주어 일하게 하였고, 나이 먹게 하였고, 죽음으로 쉬게 한다. 그리하여 내 생애를 잘 지냈으면 죽음 또한 의연하게 맞이해야 한다."

도가(道家)들에게 준용(準用)된 장례는 나장(裸葬)이었다. 그것은 신체가 생명의 힘, 곧 자연으로 저항 없이 섞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자가 죽음에 임박하자 그 제자들이 장자를 위하여 고귀한 장례를 치르고자 하였다. 장자가 말하기를 "땅으로 관(棺)을 삼고 하늘로 관(棺) 뚜껑을 삼겠다. 해와 달과 별이 내 장식품이 되리라. 내 장례는 이미 준비가 되었으니 무엇을 더 준비하랴."하였다. "짐승이 시신(屍身)

을 뜯어먹을까 걱정입니다."라고 제자들이 말하니, "땅 위에서는 독수리와 까마귀의 밥이 되고 땅 밑에서는 귀뚜라미와 개미의 밥이 되면 한 쪽에만 먹히는 것 보다 낫지 않느냐"고 대답하였다.

한편 도가의 다른 일파(一派)는 인간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백년 또는 천년까지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4) 인도의 사상과 죽음

고대 인도인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세상을 야마(Yama)라고 불렀고 이것이 불교에 들어오게 되면 염라(閻羅)라고 음역된다. 그러나 후기 베다시대(기원전 8세기경)에 이르러 야마의 왕국에서조차 삶과 죽음이 있다는 논쟁이 일어나서 윤회 사상이 짝트게 되었다.

인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가사의를 죽음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흔히 서구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반면 동양인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는 소리를 들곤 한다. 이 말은, 서양인은 현세의 가치를 고귀하고 안락한 생활에 두고 그에 대한 설계를 잘 한다는 뜻이며, 동양인은 근심과 슬픔이 없는 세상을 동경하여 그러한 비현실적 차원의 세상에 안주하고 싶어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간의식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사유(思惟)의 경향을 그렇게 동서양으로 대비하여 유형화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만, 이러한 언술(言述)은 동양인의 특성 속에 비현실적인 것에 가치를 두려는 경향이 뚜렷이 존재한다는 하나의 증거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인도인의 죽음관을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죽음이란 것을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 껍질을 벗는 새롭고도 영원한 의식으로서의 재생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는 죽음은 바로 생명과정(生命過程)의 하나이며 새롭게 형성되는 생명의 근간이다. 그러나 그 생명은 불멸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무한한 변화로서 끊임없이 멸(滅)하고 생(生)하는 형성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인도인들의 사상 속에는 인간의 본질적 자아가 생사의 순환을 벗어난 존재로 이해하기 때문에 현세의 죽음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내세의 생명과 죽음까지도 정복하기를 열망한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죽음의 공포는 자취를 감추고 생사의 순환에서 자유로우며 육신의 죽음은 깨달은 자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아니라고 본다. 죽은 것은 육신이지 본질적 자아는 아니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고대인도인들의 사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은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의 파괴로부터 나타나는 형상이다.

둘째, 죽음은 탄생에서 탄생으로 이어지는 인간 생명의 필연적인 단계이다.

셋째, 죽음은 존재론적 자신의 석방 내지는 자유화를 통해 탄생을 초월하여야만 회피되고 또 극복될 수 있다.

5) 불교 사상과 죽음

불교는 자아를 찾는 종교이고, 업보와 윤회전생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는 방법을 추구하는 종교다. 불교는 인생의 고(苦)에서 탈출하려는 무신론적 현실 해결주의에 기울어져 있고, 처음부터 철저한 무신론이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인간으로서의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보았다. 이 현실의 냉혹한 자각을 통해 죽음이라는 실상을 초연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진실을 체득함으로써 현실적 죽음의 문제가 극복된다는 것이 붓다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이 극복을 통해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 전반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불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후(死後)의 존재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인식이었다. 즉 삶에도 변민하지 않고 죽음에도 변민하지 않는, 생명에 대한 추구였다. 말하자면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업과 윤회를 벗어난 경지로서 번뇌를 꺼버린다는 원의를 지닌 열반이다.

죽음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불교의 궁극적 인식인 '생사즉열반(生死即涅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도가 된다. 불교에서의 죽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s태, 즉 적정(寂靜)이며 열반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때 해결된다.

<참고문헌>

노유자, 한성숙, 안성희, 김춘길(1995). 호스피스와 죽음. 서울: 현문사.
 이인복(1980). 한국문화에 나타난 죽음의식의 사적연구. 서울: 열화당.
 최용호. 씻김굿에 나타난 남도인의 죽음관(소논문).
 이 원고는 자원봉사자 교육교재인 호스피스총론에서 발췌된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